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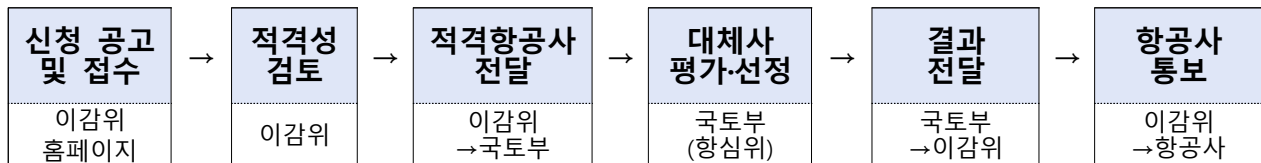
보도시점 2026. 1. 6.(화) 10:00 / 배포 2026. 1. 6.(화) 08:30

대한항공-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국제·국내 항공노선 대체항공사 선정

- 인천-자카르타, 인천-시애틀, 김포-제주 등 국제·국내 노선 대상 선정

국토교통부(이하 ‘국토부’)와 공정거래위원회(이하 ‘공정위’)는 대한항공-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구조적 시정 조치의 일환으로, 대한항공-아시아나항공의 주요 독과점 노선에 대한 대체항공사를 선정하였다.

< 대체항공사 선정 절차 >



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*(이하 ‘항심위’)는 대한항공-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**(이하 ‘이감위’)의 요청에 따라 대체항공사를 심의·선정하고, 항공사별 세부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였다.

* 항공·경영·경제·법률 분야의 전문가 10인 등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

** 공정거래·소비자·항공·회계감사 분야 전문가의 9명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'25.3월 발족

< 노선별 대체 항공사 >

국가		노선		대체항공사
국제선	미국	인천-시애틀		알래스카항공
		인천-호놀룰루		에어프레미아
	인도네시아	인천-자카르타		티웨이항공
국내선		김포→제주	하계 87회	이스타항공, 제주항공, 티웨이항공, 파라타항공 ※ '가나다' 순
		제주→김포	동계 74회	

* 그 외 인천-뉴욕(대체사: 에어프레미아, 유나이티드항공), 인천-런던(대체사: 버진애틀랜틱) 2개 노선에서는 해외 경쟁당국 조치에 따라 슬롯 이전 절차 진행

** 신청 항공사가 없었던 인천-광, 부산-광, 광주-제주, 제주-광주 노선의 경우 선정 절차 미진행

항심위에서는 운수권 배분 시에 활용하는 「운수권 배분규칙」을 반영하여, 항공사별 제출자료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각 경합 노선(인천-자카르타, 김포-제주, 제주-김포)별 신청 항공사들의 대체사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*를 진행하였다.

* 안전성, 이용자 편의성, 취항계획 구체성, 지속운항 가능성, 지방공항 활성화 기여도 등

인천-자카르타 노선은 최고 득점 항공사를 대체항공사로 선정하였으며, 단독 신청 노선인 인천-시애틀, 인천-호놀룰루 노선은 신청항공사를 그대로 선정하였다. 또한, 김포-제주 노선은 4개 항공사를 선정하였다.

이번 선정에 따라 각 대체항공사에서는 배정받은 슬롯*을 반영하여 사업 계획을 편성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거치게 된다. 이에 이르면 상반기부터 각 독과점 우려 노선들에 대체항공사들이 순차적으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.

* (슬롯) 각 항공 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시간으로, 항공사는 배정받은 시간에 공항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

아울러, 이미 이전 완료된 6개 노선과 이번에 이전될 7개 노선 외 나머지 시정조치* 노선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부터 신속하게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, 향후 항공시장 경쟁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.

* '24.12월 공정위는 대한항공-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,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서 대한항공 등이 대체항공사에 슬롯운수권을 이전하도록 하는 의무 부과

국토교통부	항공정책실 국제항공과 (국제선)	책임자	과 장	차상헌 (044-201-4207)
		담당자	사무관	최연준 (044-201-4211)
			주무관	박초룡 (044-201-4210)
	항공정책실 항공산업과 (국내선)	책임자	과 장	박준상 (044-201-4219)
		담당자	사무관	이금아 (044-201-4224)
			주무관	김은진 (044-201-4222)
공정거래 위원회	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업결합과	책임자	과 장	김성한 (044-200-4630)
		담당자	서기관	정용선 (044-200-4631)

참고1**2025년 12월 기준 구조적 조치 완료 노선 현황**

연번	국가	구 분	대체 항공사 (해외 경쟁당국 조치)
1	미국	인천-LA	에어프레미아(美DOJ)
2		인천-샌프란시스코	에어프레미아(美DOJ) 유나이티드항공(美DOJ)
3	스페인	인천-바르셀로나	티웨이(EC)
4	독일	인천-프랑크푸르트	티웨이(EC)
5	프랑스	인천-파리	티웨이(EC)
6	이탈리아	인천-로마	티웨이(EC)

참고2**대한항공-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 개요**

- (설립배경) 공정위 2022.5.9. 의결 제2022-107호(2024.12.24. 의결 제2024-364호로 변경된 것)에 따라 대한항공-아시아나 기업결합의 시정명령 이행에 대한 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'25.3.6. 발족
- (구성) 공정거래·소비자·항공·회계감사 분야 전문가들 중 대한항공 등과 독립하여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
- (업무) 기업결합일('24.12.12.)로부터 10년간 다음의 사항에 대해 감독하고,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매분기 점검하여 공정위에 보고
 - ① 운임·공급좌석 모니터링 및 서비스 질 제고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
 - 운임인상 제한, 공급 좌석수 축소 제한, 상품·서비스의 불리한 변경 금지, 마일리지 제도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 의무 준수 여부
 - ② 합리적인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및 제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
 - ③ 슬롯·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에 관한 사항